ERIC LEE Video Script / 에릭 리 영상 자막

Self introduction /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빈 입니다. 에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Short introduction of Cooperative / 협동조합에 관한 간략한 소개

저는 펀컴퍼니의 공동 창업자이자,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세계를 여행하는 다국적 팀의 일원입니다.

(Group Picture of our team)

Story of cooperative identity / 협동조합의 정체성 이야기

펀컴퍼니는 LEINN이라는 4년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LEINN 이란, 리더십(Leadership),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혁신(Innovation)을 의미하는 몬드라곤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우리는 어떠한 강의도, 시험도, 지도해 주는 교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팀이 되어 실제 협동조합을 만들고 사업을 펼치며 전 세계를 무대로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열정을 모아 다양한 지역에서 1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미국 시애틀과 워싱턴에서 지역사회 내 소규모 사업자들을 도와 온라인 및 영상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했고, 스페인의 빌바오 중심에서는 한국 문화행사를 조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혁신적 방식으로 성교육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photos for each projects)

이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저에게 다양성의 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팀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구성기 때문에 함께 일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내딛을 때 마다 팀에서는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에 나오는 시간을 정하는 데 2주, 조합의 휴일을 정하는 데 다시 한달이 걸렸습니다.

(photo of dialogue session)

하지만 협동주의 문화 덕분에 결정에 앞서 소수 의견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다른 점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미래

저는 저의 이야기로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청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 반대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또 새로운 영감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만나요!